

2015년 9월 7일 월요일 새벽말씀(편집본)

아침에 이렇게 일찍 예배를 드리니까 좋잖아요. 내일은 더 당겨볼까?

금주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제에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사랑!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잊어버리기 전에...

잘 보이죠? 이렇게 쓰는 것도 있고, 이렇게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야 되겠습니다. 그림과 도표가 움직입니다.

이게 사랑 표시입니다. 글씨도 되고, 그림도 그리고, 도표가 글씨도 같이 겹치게 되기도 합니다.

이게 구상입니다.

사랑! 오늘 아침에 뭘 전해 줄까?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사랑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자꾸 가르쳐 주어야 알지, 안 가르쳐 주면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아는지 하니,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은 모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나를 한다 했습니다. 선생님도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나... 정말로?’

늘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살 때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정말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는가?’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한다.” 이것에 대해 “그렇다!” 하고 대답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배워서 압니다. 지금은 아는데, 옛날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정말 진정 사랑한다는 이것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지요?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그렇게 사랑할까?’ 했습니다. 왜 사랑하냐는 말입니다. ‘왜? 아무 것도 아닌 사람을 왜 사랑하냐? 뭣 하러?’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사랑하고, 인간을 낳았으니까 사랑하지’ 하는 것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경 쓰이게 사랑할 리가 있겠나?’ 이 단계까지 생각하고 연구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도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연구를 안 하고서 내가 얘기하겠습니까. 연구를 했던지, 기도를 많이 했던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간들을 사랑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있는 여러분도 못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필요성도? 우리는 있습니다. 왜? 겁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혼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 가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필요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꼭 사랑할 필요가 있나?’ 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깨우쳐 주지 않으면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권이 없이는 사랑치 않으십니다. 전혀. 냉철하게 얘기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없으면 사랑치 않습니다.

(도표) 하나님은 이만하지만, 우리는 이만합니다.

무엇을 느끼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돈을 보고서 돈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 하고, 어른이 느끼는 것은 다릅니다.

장미에게 돈을 만원을 주었을 때, 그 필요성을 느끼는 것과 우리에게 만원을 줬을 때 느끼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단계에서 그냥 사랑하는 것과, 정말 가치를 느끼고 가치 있게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해가 됩니까? 내가 공부한 대로 가르쳐 줘야 됩니다. 목ש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얼 만큼의 많은 유익이 있는가 하면 한 1억 만큼의 이익이 있습니다. 우리는 100만원만큼의 사랑의 느낌을 받습니다.

별이 꽃을 보고 느끼는 것과 우리가 느끼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이 훨씬 더 감각적이고 감상적이고 문학적이고, 또 예술적입니다. 여러 가지를 느낍니다.

하나님은 인간 위의 존재자입니다. 생기는 우리와 같이 생겼지만, 인간 위의 존재자이기 때문에 느끼는 것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것과 내가 느끼는 것도 다릅니다. 그래서 뭘 표현하는 것도 깊게 표현합니다. 더 깊이 느끼니까 더 깊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머리가 수억 조이기 때문에 무엇을 느껴도 그 수억 조 만큼 느낍니다. 인간은 130이니까 130밖에 안 느낍니다. 이해가 됩니까?

사랑은 느낌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표현입니다.
사랑은 느낌이다!

대학교 가도 이런 것을 안 배웁니다. 잘 못 배웁니다. 선생님은 철학, 종교, 인생에 대해서, 영 육 혼에 대해서 다 포함하여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면 어마어마한 희열을 느끼고, 강한 것을 느낍니다.

할머니가 손자를 사랑할 때는 그 느낌이 무지하게 많이 오는데, 손자는 할머니가 안으면 싫다고 기어 도망갑니다. 좋기는 좋은데 도망갑니다. 아기는 느낌을 못 느낍니다. 어리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말씀이 짝사랑에 대한 얘기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대단히 큼니다.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꼭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으로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고 우리를 길렀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치 않으면 우리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위하고 섬기고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혼의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사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부모이기 때문에.

육신의 세계도 다 통할주의 합니다. 결국은 다 하지만, 그러나 영혼의 부모이기 때문에 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 외에는 없습니다. 괜히 미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괜히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조건이 있으니까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조건이 있으니까 미워하지, 괜히 미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 것이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자기 것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늘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가 써먹으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쓰니까, 고장 나니까 손질하고.

이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사랑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나? 왜 사랑하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왜 사랑하실 필요가 있는가?’ 그런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못 느끼는 사람에게 깨우쳐 주는 이야기지,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사랑 받을 수밖에 없는 아쉬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에서 강제한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제 머리가 돌아가면, 뇌에 세뇌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겠습니까. 안 사랑하겠습니까?

일단은 하나님이 인간을 낳았기 때문에 이 세상 누구든지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사랑을 못 받게 된 것입니다. 왜?

처음에는 다 사랑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제 또 설명해 주겠습니다.

처음에는 왜 사랑을 많이 받았느냐 하면, 인간이 아주 작으니까 악을 행동하지 않았습니니다. 악한 일을 행동하지 않았습니니다.

악을 행치 않았고, 악한 마음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악하지 않고 선하시기 때문에 사랑이 잘 통했습니다. 안 통할 수가 없지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차차로 커가면서 자꾸 사랑이 다른 데로 갔습니니다. 사랑이 다른 데로 가고, 또 하나는 악한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행위를 했습니다.

악한 마음도 먹고, 악한 행위를 하니까 사랑이 서서히 끊어졌습니다. 이래서 첫사랑과 달라졌던 것입니다.

어린애들도 어렸을 때는 부모가 더 사랑하다가 크면서 뺨돌 거리니까 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밖으로 돌아다니기만 하고.

이래서 사랑을 덜 받게 된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참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그것을 인식하면서, 섭리도 똑같습니니다. 메시아의 사랑도 똑같습니니다. 구세주가 왔을 때도 똑같습니니다. 그는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니까. 하나님 사랑을 실제로 심어주러 왔으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은 아무 죄가 없습니니다.

이제 사랑에 대해서 알았지요? 설명을 이렇게 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 매듭 짓습니니다.

사랑은 오래 해야 됩니다. 하다 말면 안 됩니다. ‘사랑의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시간이!

내가 애들을 사랑스러워서 데리고 다녀보면 조금 있다가 도망갑니니다. 바

쁘다고 어디 가고 그러합니다.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너도 깨달아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시간’이 오래가야 됩니다. 조금 사랑하면 안 됩니다.

남녀에게 1분만 사랑하라고 한다면 너무 그렇잖아요. 2분만 사랑하라 하고, 3분만 사랑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야, 100시간을 사랑하라. 일도 안 하고 100시간만 사랑하라. 서로 애기하고 돌아다니고, 밥도 먹고, 서로 손도 잡고 100시간 하라.” 그래야 좋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너희도 그러 하라.” 했습니다.

“언제 내가 너의 손을 잡고, 언제 너를 쳐다보는지를 깨달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시간적 사랑을 분석해 보니까 오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오래! 알겠습니까. 사랑을 조금 해서는 안 되고, 오래! 시간적으로 분석할 때.

또 하나는, 형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형벌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비유를 들겠습니다. 내가 어떤 여자를 사랑하는데, 여자가 내 마음을 모르면 <동참>을 안 합니다. 같이 하는 일에 동참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하는 일에 같이 동참을 안 하니까 혼자 자기 아이디어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이큐로 하니까 머리가 잘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고를 냅니다.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러합니다.

그것은 저주한 것이 아니라, 저주로도 볼 수 있지만, 그 저주보다, 하나님이 놔두니까 사고를 내더라는 것입니다. 다치더라 그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아 신이 나를 저주했구나. 나는 죄를 받았구나.’ 하지만, 사랑하는 자의 심정을 몰라주니까 다치게 놔둔다 그것입니다.

다치게 둔이 죄입니까. 본인은 모릅니다. 다치게 놔 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데, 내 마음을 모르니까 내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다친다.” 이것을 알려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알아주니까 내가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다치더라 그것입니다. 계속 한 번도 안 다치더라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머리를 주니까 역시 안 다치더라 그것입니다. 생명의 위험성을 안 느끼고 좋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고 우러러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하고 쫓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을 모르니까 혼자 하게 놔둬서 자기가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그러다가 넘어져서 다치더라 그것입니다. 이것은 동참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나의 사랑을 아니까, 내가 같이 가니까 안 넘어지더라 그것입니다.

썰매나 스키를 탈 때도 선생님이 한번 눈 돌렸을 때 다치더라는 것입니다. 불꽃같이 쳐다보는 눈초리가 그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눈을 통해서 쳐다봅니다. 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며 막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못 막습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사랑에 대한 얘기는 끝도 한도 없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을 사랑치 않는 것이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치 아니함으로 인해서 흑암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간음했다고 했습니다. 자기 애인이 간음하고 온 것과 똑같이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의 끝나는 것입니다. 이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애인이 간음했다,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웠다면 거의 이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해 버렸습니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간음했다고 했습니다.

자기 애인이 있는데,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웠다면 그 사람을 총으로 쏘 죽이든지, 모가지를 자르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한다, 그러면 간음한 것으로 치기 때문에 돈을 쳐버립니다. 그래서 순간 돈이 툭 떨어져 버립니다.

이것을 안 들으면 큰일 납니다. 묵시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많이 강의하면 안 됩니다. 많이 하면 가치를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루 5분에서 10분 정도만 하면 됩니다.

사람이 맨날 밥만 먹고 화장실만 갔다가는 살만 썩어서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가치를 깊게 생각하고 ‘아, 이것이구나!’ 해야 됩니다.

산에 가서 기도해 보라는 것입니다. 저기 국기봉이 있습니다. 거기에 국기를 꽂은 봉인데, 거기가 극기봉이 되었습니다. 거기가 극기 훈련장입니다.

거기까지 가서 기도를 열흘을 해도 이런 말씀 못 받습니다. 10년 동안 해도 못 받습니다. 왜 못 받는가 하면, 사명자가 아니기 때문이라도 못 받고, 너희에게는 말씀을 안 준다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기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은 조건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 세계적인 조건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못 세운 세계적인 조건을 세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보고, ‘귀한 말씀이다!’ 맨날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돈을 벌러도 안 가고, ‘돈도 싫다. 오직 하나님밖에 사랑할 것이 없다.’ 하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기록이 일단 됐으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기준을 세웠기 때문에! 기준자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안 들어주면, 무엇을 표상으로 보고 하나님을 쫓겠습니까?

내가 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 하면, 모든 사람이 못 세우는 기록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에 경험이 있어야 성경이 풀어지지 그냥은 안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선생이 경험을 통해서 성경을 풀었습니다. 몸부림치고.

산에 가서 몸부림치고 들에 가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큰 형도 산기도를 다녔습니다. 작은 형도 다녔습니다. 그러나 어렵도 없습니다. 나만큼 못했습니다.

선생님은 한번 들어가면 8일씩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간증하면 하도 겁나서 듣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가서 8일씩 무릎 꿇고 있어 보십시오. 하루만 그렇게 하고 있어도 넘어집니다.

그냥은 그렇게 못합니다. 기도해서 영계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심오한 단계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면, 계속 눈이 빠지라고 봐서, 한번 눈을 성경에 대서 끝날 때까지 눈을 안 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한 장도 제대로 못 넘기고 벌써 옆을 쳐다 봅니다.

이런 조건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독의 조건을 세우고, 참선의 조건을 세웠습니다. 불교로 말할 것 같으면 참선입니다. 깊은 참회를 하면서 깊은 단계에 들어가서 정말로 한번 들어박히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그런 ‘조건’을 세워야 ‘대가’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모든 사람이 세우지 못한 조건을 세웠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런 사명을 하게 되었노라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 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

니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가르쳤으니 이들이 배우고서 헛된 짓 하지 않게 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충만함을 갖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들을 축복하오니 말씀과 진리로 온전케 되고, 사탄과 흑암과 어둠을 물리치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면 흑암도 없어지고 어둠도 없어지고 마귀도 귀신도 없어질 것이며, 자기의 실패와 어둠 속에 빠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의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길을 가르쳤으니, 그리하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의 큰 은혜와 은총이 이들뿐만 아니라 전국과 온 지구촌에 있는 모든 자에까지 충만하고 영원할지어다. 아멘.